

시보쿠사센겐 신사

오시노무라(마을)의 시보쿠사에 있는 센겐 신사는 807 년에 건립되어 1186 년에 현재의 위치로 이전되었습니다. 1193 년에는 가마쿠라 막부의 쇼군 미나모토노 요리토모로부터 북쪽의 도리이치 고개까지에 이르는 토지를 신사의 영지로 부여받게 되었습니다. 19 세기에는 이 신사의 신자들에 의해 오시노 핫카이 개발이 이루어졌는데 현재도 이 신사는 오시노 핫카이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신사의 경내에는 수많은 주목나무 고목이 우거져 있습니다. 이들 나무의 바깥 둘레는 1.4~3.7m 로 이만큼 거대한 나무가 한 곳에 군생하는 것은 매우 드뭅니다.

삼신상

이 신사의 보물로 1315 년에 만들어졌다고 여겨지는 3 개의 목상이 있는데, 그 중 하나인 여신상은 센겐 신사에 모셔지는 여신 고노하나사쿠야히메의 상이라고 전해집니다. 그러나 일설에 따르면 헤이안 시대(794~1185)에 쓰여진 이야기인 다케토리 모노가타리(대나무꾼 이야기)에 나오는 가구야히메와 가구야히메에게 구애하는 2 명의 구혼자를 표현한 것이라고도 합니다. 가구야히메는 항상 구혼자가 끊이지 않았던 절세 미녀로 이 구혼자 중에는 완전히 가구야히메의 노예가 되어버린 황제도 있었습니다. 이 구혼자들을 모두 거부한 가구야히메는 결국 황제에게 불사의 약만을 남기고 고향인 달로 돌아가 버립니다. 슬퍼하던 황제는 이 약을 후지산 정상에서 태워 버리라고 명령했습니다. 후지산이 하늘과 가장 가까운 산이기 때문입니다. 이 전설에 따르면 후지산의 ‘후지’는 일본어 ‘후시(不死)’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